

《배를 그리는 법》 독서지도안



안도현 시인, 어린이의 상상력을 노래하다!
상상의 힘,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시 그림책!

- 작가_ 안도현 시 · 연수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쓱쓱 짹짹!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좋아하는 색깔 그림 도구로 마음대로 끼적입니다. 툭툭 점을 찍기도 하고, 뽀뽀뽀 선을 그어 보기도 하고, 둥글게 굴리다가 구멍을 메우기도 하지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손 가는 대로 끼적이다 보면 자신만의 멋진 그림이 완성됩니다. 똑같은 사과 한 알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도 모두가 다 다르지요. 사람, 나무, 구름, 배... 우주 안에 무엇 하나 똑같지 않은 것처럼요.

《배를 그리는 법》은 어린이들이 그린 ‘배 한 척’ 그림을 바탕으로 상상의 힘,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생하게 담아낸 시 그림책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특유의 통찰력 있는 언어로 순수한 어린이들의 상상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를 닮은, 역동적이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그림들이 장면마다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바다 위에 뜬 배 한 척을 그려보라고 하자 어린이들은 골똘히 궁리합니다. ‘배’라는 단서가 주어졌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배는 다릅니다. 바람에 미끄러지는 돛단배를 그린 아이도 있고, 멋진 수염을 달고 가는 증기선을 그린 아이도 있지요. 고기잡이배와 그물을, 항구에 닻 내리는 컨테이너선을 그린 아이도 있고요. 그중 어떤 배가 가장 멋있을까요? 사실 돛단배는 돛단배여서, 증기선은 증기선이어서 좋습니다. 각자 나름의 역할과 쓰임새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꿈도, 생각도, 상상력도 저마다 달라서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것 아닐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사람과 동물은 각각 다르게 생겼고 사는 모습도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이 세계를 구성합니다. 독자는 책을 보며 평범하지만 지극한 그 진리를 깨달으며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자신이 바라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교과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 3. 문장으로 표현해요
 -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 3. 마음을 나누어요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5. 간직하고 싶은 노래

• 지도 요점 :

수업 시간, 선생님이 바다 위에 뜬 배 한 척을 그려보라고 하자 어린이들은 골똘히 궁리합니다. ‘배’라는 단서가 주어졌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배는 다릅니다. 바람에 미끄러지는 돛단배를 그린 아이도 있고, 멋진 수염을 달고 가는 증기선을 그린 아이도 있지요. 고기잡이배와 그물을, 항구에 닻 내리는 컨테이너선을 그린 아이도 있고요.

그중 어떤 배가 가장 멋있었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려보라고 했나요?



- ① 공원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 ② 얼음 위에서 있는 북극곰
- ③ 바다 위에 뜬 배 한 척
- ④ 사막 위를 걷는 낙타



(2) 멋진 수염을 달고 가는 배는 어떤 배인가요?



- ① 돛단배
- ② 고기잡이배
- ③ 컨테이너선
- ④ 증기선



(3) 항구에 닻 내리는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들이 어떤 글씨를 만들고 있나요?



- ① 애들이 사랑해
- ② 바다야 사랑해
- ③ 우주야 사랑해
- ④ 하늘야 사랑해



(4) 요트는 무엇을 향해 나아갔나요?



- ① 수평선
- ② 노을
- ③ 무인도
- ④ 우주



4. 확장활동

(1) 여러분이 만약 '배'를 그린다면, 어떤 배를 그리고 싶나요?



(2) 돛단배는 돛단배여서, 증기선은 증기선이어서 좋아요. 구름, 나무, 배, 고래, 물고기... 그리고 사람. 우주 안에 무엇 하나 소중한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저마다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이 세계는 단단하고 풍요로우니까요. 서로 달라 무엇이 좋은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이 책의 하얀 도화지에는 어린이들이 저마다 떠올린 ‘배’의 다양한 모습이 가득 채워집니다. 생김새가 다른 배는 저마다 다른 사람을 태우고, 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요. 어린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요.
도화지 위에 쌀알만 한 점 한 개는 어떤 배일지 상상해 보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③ 바다 위에 뜬 배 한 척 | (2) ④ 증기선 | (3) ② 바다야 사랑해 | (4) ① 수평선

확장활동

- (1) 세계 바다 곳곳을 다니는 크루즈를 그리고 싶어요.
바닷속을 멋지게 탐험하는 잠수함을 그리고 싶어요. 등
- (2) 친구와 서로 성격이 달라 더욱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생김새가 달라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등
- (3) 넓디넓은 우주에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우리는 우주와 지구 속을 여행하고 있는 작은 배 하나인 거 같아요. 등